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역 먹거리 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A등급을 차지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별로 지역 먹거리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장을 촉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전국 1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정책과 시민참여, 기획생산 촉진, 안전성 관리, 지역 먹거리 소비 기반 등 17개 지표에 대한 서류 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시는 상위 15개수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포상금 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악자지결 신태인 영화제' 성료

정읍시가 신태인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일환으로 지난 25일 신태인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자지결 신태인 영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신태인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대표 모병석)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악자지결 신태인 영화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민들어가는 마을 미디어 행사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고 촬영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내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모병석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영화제에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마을 주민과 지역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화제에서는 신태인을 소재 9개 마을(광해, 포천, 서지, 상삼, 우령, 신기, 용서, 원백산, 중앙)의 각양각색 이야기를 담아 제작된 5분 분량의 영화가 상영됐다.

상영된 영화는 총 9편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내년 공약사업 시행 분주

심덕섭 고창군수 주요 공약, 승인·협의를 절차 본궤도 올라



2023년 심덕섭 고창군수의 주요 공약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복지사업 등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의 주요 공약사업(6대 분야; 15대 전략, 80대 과제) 중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요복지 공약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첫째 아이 300만원(현재 100만원), 둘째 500만원 등 자녀수에 따라 대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

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준비에 들어갔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지원 사업'도 중앙부처에 고창군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설명해 어르신들의 치아건강 부담을 줄여드릴 계획이다.

이기가 다쳐 입원할 때나 화상을 입었을 때 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형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군은 지역 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부처협의를 앞서 군산과 경북 구미 등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문의하고,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빠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심덕섭 군수의 농어촌 핵심공약 중 하나인 농어촌 인력난 해

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설치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단기인력 필요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군은 우선 내년 4월로 예정된 법무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신청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농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고창군 농업인 회관 건립'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기존 사용하지 않던 파출소 부지를 매입한 뒤 철거를 완료했고, 다음달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체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등의 추진으로 내년도 고창군정에 대한 군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2023년 업무 준비 철저" 당부

간부회의 통해 지역경제 회복·시민 중심 업무계획 수립 '제차 강조'

이학수 시장이 28일 오전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올해 각종 주요 사업 마무리와 2023년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 중심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정책과 전북도 정책 기초, 민선 8기 시장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안을 거쳐 주요 업무계획



을 확정해야 한다"며 "부서장 중심으로 첫 단추를 잘 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나눔 성금 모금에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도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겨울은 어려운 가구와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위기 아동 등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들이 더욱 힘든 시기"라며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8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상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군정질문은 2명의 의원이 총 10건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조만규·조규철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만규 의원(가산거구)은 △청년센터 건립 △청년창업농을 위한 스마트단지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청년창업상품 답례품

의무 할당 △음지역 거주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탕 이용료 지원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다.

또한 △고창문화관광재단 역할 강화 방안 △고창인도관광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창군민의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의 건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조규철 의원(라산거구)은 △황토배기 유통 경영 정상화 계획 △원지력 발전소 현황 문제에 대한 고

창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임정호 의장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한 것"이라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심덕섭 군수의 답변은 12월 5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 부안지역·출신 대학교생들은 2023년부터 1, 2학기에 대하여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반값등록금 전 학년 확대

부안군, 대학교 비진학 장학금·다자녀 특기장학금도 계속 지원

전북 부안지역·출신 대학교생들은 2023년부터 1, 2학기에 대하여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1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조성한 장학기금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전 학년에 대하여 1, 2학기 모두를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17년 반값등록금 지원이 대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지원된 이후 2023년부터는 대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1, 2학기를 모두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2017년 대학교 1학년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2019년에는 1~2학년, 2020년에는 1~3학년, 2021년에는 1~4학년에 대하여 1학기 반값등록금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3학년은 1학기, 4~6학년에 대해서는 2학기까지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

또한 대학교 비진학 취·창업 학원비 지원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학원비 3개월 분에 대한 반값을 100만원 내로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학원비 1년분의 반값을 200만원 내로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04년에 설립되었다.

부안군이 3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전신인 '부안군에향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기초를 세웠다. 이후 향우인 근농 김병호 회장이 고향의 후배를 위해 지역 인재육성에 10억원 상당의 거액을 기탁한 것을 계기로 부안군 장학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적극 지원

부안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집중점검·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단전·단수, 체납 겨울철 위기 사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와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를 지원할 경우이고, 기준초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민간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겨울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희망지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권익형 부안군수는 "이번 겨울은 복지소외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적안정망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